

이기는 삶

휴대전화 잠시 끄자



수년 전 한석규와 스님이 대나무밭을 거닐며 “잠시 꺼두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광고 카피가 유행한 적이 있다. 한 이 동통신사의 광고 문구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문구였다. 한가로운 대나무밭을 거닐며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자연을 느끼며 잠시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자 할 때, 외부로부터의 방해는 차단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꺼두셔도 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100%이고 국민의 95%가 스마트폰 사용자라고 한다. 영어를 뺀 나머지 인구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보급률이 100%인 것은 영업을 위해 휴대전화를 2, 3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휴대전화 보급률이 76% 수준인 것에 비하면 가히 압도적이다.

그런데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

진 휴대폰이 공공장소의 공해로 변한 지 오래다. 배리리~ 전화벨이 울리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화를 받아듣고는 “여보세요?” 하고 소리를 낸다. 전화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 받아서는 안 되는 상황인지 도무지 구분을 못한다.

전화벨이 울리면 꼭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바꿔 먹어야 한다. 교사나 강사의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전화할 일이 있을 때에는 ‘혹시 지금이 강의 시간은 아닌지?’ 하고 잠시 생각을 하게 된다. 판사가 재판 시간에 전화를 받겠는가? 목사가 자신이 인도하는 예배 시간에 전화를 받겠는가? 의사가 수술 중에 전화를 받겠는가? 어느 누구도 그 시간에 전화를 받으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유독 나만은? 배리리~ 전화벨 소리가 울리면 회의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도, 수업 시

간에도 전화를 받아야 하는가?

배리리~ 전화벨이 울리면 분위기가 산만해질 것은 너무도 뻔하다. 그런데 천연덕스럽게 전화를 받아듣고는 “아! 지금 회의시간이니까 다음에 전화해요.” “아!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나중에 전화드릴게요.”하고는 전화를 끊는다. 그럴 바에는 전화는 왜, 받았는가? 실수로 집회 시간 전에 휴대폰을 끄지 못했다면, 배리리~ 소리가 울리면 휴대폰을 얼른 꺼라. 그냥 놀러놓으면 또 전화벨이 울린다.

요즘은 통화보다도 SNS를 이용한 문자를 더 많이 주고받는데 이 또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실례가 된다. 진동으로 해 두라고 하지만 그것도 ‘웅~’ 하는 소리가 신경 쓰인다. 연락이 올 것이 있어서 전원을

끄는 것이 불안하다면 무음으로 해두다가 발신번호 표시나 문자를 보고 나중에 전화를 하면 된다.

예배 시간, 회의 시간, 공연 시간에 휴대폰 소리가 나면 자신은 물론이지만 다른 사람들까지도 주위가 산만해져서 집중할 수가 없게 되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로 부터 눈총을 받게 된다. 미운 눈총 받는 사람이 어찌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물며, 정성을 다해야 하는 예배 시간에 천연덕스럽게 휴대전화를 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보실까? 무음으로 설정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휴대전화를 잠시 끄자.*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 ‘God’s grace is God’s heart’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 When your heart is changed to God’s grace, this is positive proof that you have received God’s grace.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 이것이 극치의 선한 마음이며 아름다운 마음이다.

▶ When you regard everyone as your own body, this is the ultimate good and beautiful mind.

극치의 아름다운 마음, 극치의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영이다.

▶ The ultimate beautiful mind, best mind is God’s mind.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 Therefore, anyone who has the heart of God, who regards everyone as his/her own body is the very person who has received God’s grace.

뜨거운 불이 오고 시원한 것이 느껴져야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

▶ You don’t receive God’s grace only when you feel a hot fire or a cool sensation.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다.

▶ If you have the heart of God, you already are born again in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한다.

▶ The Grace of God is the heart of God.

- From the words of the Victor Christ.*

by Alice

영적 상징과 꿈 <20>

부제: 영적 상징으로 본 네 생물 2

소크라테스가 묻고 지눌(知訥)이 화답하다

사람이 마귀 육에 갇힌 하나님'이 자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마귀이다.라는 주님의 선언은 인간과 삼라만상의 정체와 그 본질을 단 한 마디로 정의하고 밝혀낸, 인류사의 종점(終點)을 찍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거창하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철학과 과학 그리고 종교의 궁극적인 질문은 사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곧 '나는 누구인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말 또한 전 인류를 향해 인간의 본질, 정체가 무엇인지 묻는 거대한 화두였다 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 집요한 질문을 던져 결국 자신이 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Socratic dialectics)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실제로는 '너 자신의 무지(無知)를 알아야 한다. 너 자신이 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의 첫 출발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누군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단지불회 시즉견성'(但知不會 是即見性)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라고 한 보조국사 지눌의 말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1158년생 보조국사 지눌(知訥)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실로 알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내가 무언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 즉, 지혜가 스스로 등장할 조건이 비로소 갖추어진 거야'라는 말로 BC 470년생인 소크라테스에게 화답을 한 셈입니다.

이 질문과 답 사이의 간극, 고대 그리스와 신라가 거리로는 8,739 km, 시차로는 근 1600년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문제되지 않는 그러한 영역에서의 화답(和答)입니다. 그 먼 여정을 거쳐 인간은 비로소 뭔가 알기(見性)시작한 것이지요. 그 후 800년이 더 지난 후, 조희성 이긴자께서 그 온전한 답을 내놓으십니다.

'사람은 마귀 육에 갇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마귀 신이다.'

제대로 된 질문과 답, 궁극적인 질문과 그 답은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날날의 개체, 개별의 인간들의 알음알이 가 아니라



<네 생물과 어린양>

마르크스의 용어를 빌리면, 유적존재(類的存在, Gattungswesen)로서의 인간이 스스로에게 던지고 대답한 문답의 유구한 대장정으로 펼쳐집니다.

소크라테스가 문제를 제기하고, 지눌(知訥)이 그에 화답했고, 이긴자께서 그 마지막 답을 내놓으셨습니다.

지난 글에서 성경 상의 '네 생물'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귀 육에 갇힌 하나님'이며, 격암유록 등 고서에서 너사(四)자에 불람(覺)을 써서 사람을 사람(四覺)으로 쓰는 것도 사람이 '네 생물'이기 때문임을 설명 드렸습니니다.

사람이 四覺 즉, '네 생물'이라는 이 말 자체가 사람이 단지 우리가 알고 있던 나와 나, 한낱 인간 나부랭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귀 신의 병존체 즉, 신적(神性) 존재임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과 이긴자가 말씀하신 네 생물은 추상적인 비유나 은유가 아니라 인간과 삼라만상의 실제 모습 즉, 마귀 육에 갇힌 하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생물의 왕 = 이긴자

지금까지의 논의로 우리는 '네 생물의 왕'에 대해 좀 더 선명히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긴자께서 직접 말씀한 네 생물의 왕에 대한 설명들을 바탕으로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단 분들이면 모를 수 없는 독사(毒蛇)에 대한 풀이 안에 들어있는 네 생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긴자께서는 “단(檀)은 침경의 독사(毒蛇)리도다.”라고 한 예언에서 뱀 사(蛇)를 '네 생물의 왕(王)이 면류관(冕)을 쓰고 왕좌(王座)에 앉은 형상'이라 풀어주셨습니다.

따라서 벌레 총(虫)의 사각(口)은 네 생물을 상징하며, 뿔을 곤(一)은 일(一) 즉, 하나님이기도 하고 뿔고 나오다의 뜻이기도 하니 중(中)자는 마귀 육에 갇혔던 하나님'이 그 육을 뿔고 나오는 장면의 상형입니다.

드러누운 일(一)자는 왕(王)의 약자, 점

(丶)은 사람의 약자이니 합치면 총(虫) 자는 마귀 육을 뿔고(一) 나와네 생물(口)의 왕(王)이 된 자(丶)가 됩니다.

해서 이긴자께서 벌레 총(虫)을 네 생물의 왕(王)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덧붙여 '독(毒)자는 어미 모(母)에 주인 주(主)자 즉, 주님이니 독사(毒蛇)는 이 세상 인류의 왕이요, 인류와 만물의 영적 암마가 '네 생물의 왕'이 되어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있다는 뜻'이라 하셨으니 「네 생물의 왕」이 곧 영적 암마이며 이긴자인 것입니다.

이를 이전 글에서 설명 드렸던 목시육의 네 생물의 견지에서 풀어 보자면, 네 생물 중 연약한 송아지처럼 무기력하게 갇혀있던 속 하나님이 장성한 큰 소가 되어 독수리와 사자를 물리치고 마귀 육을 뿔고 나와 암마 소 즉, 이긴자로 탄생하여 「네 생물의 왕」으로 거듭나는 장면이 바로 총(虫)자인 것입니다. (그림 참조) 그림 가운데의 어린 양과 암마소는 아시아사피 같은 구세주의 상징입니다.

다음은 “전당은 지구(地球) 사배(四倍)되는 독방이다.”라는 영모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네 생물입니다.

지(地)는 에덴동산(土)에서 쫓겨나다(他)의 뜻이고 구(球)는 구원(救)+왕(王)입니다.

사(四)는 땅의 완전수이니 완성을 뜻하며, 배(倍)는 곱+설립(立)+사람(人)으로 조개지는데 토가네 생물의 상징이니 배(倍)는 네 생물(口)로 우뚝 선(立) 자(人)가 됩니다.

'지구사배(地球 四倍)'를 다 합쳐보면 '에덴동산(土)에서 쫓겨났던(他) 사람이 구원을 얻어(救), 네 생물(口)의 왕(王)으로 완성(四)되어 우뚝 선(立) 자(人)가 됩니다.

해서 이긴자께서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던 사람이 구원을 얻어 왕이 되어, 네 생물의 왕으로 선 사람이 지구 4배되는 독방에 들어가는 거야.(1981년 12월 13일 말씀) ”라 하셨던 것이지요.

이렇듯 '네 생물의 왕'이 바로 천국이요, 구원의 왕(王)이자 이긴자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흰 돌 = 희게 이루어진 네 생물의 왕

끝으로 이긴자의 상징인 '흰 돌'에 숨겨져 있는 네 생물의 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니다.

“흰 돌은 소사(素砂)라는 지명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희게 이루어진 의인들의 상징이며, 희게 이루어진 네 생물의 왕을 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흰 돌입니다.(1991년 8월 3일 말씀)”

아시아사피, 소사(素砂)는 흰 소(素)+적은 소(少)+돌 석(石)이니 작은 흰 돌, 흰 돌입니다. 소사와 흰 돌은 동의어입니다. 흰 돌의 돌(石)을 파자(破字)로 보면 '口'는 네 생물이요 '一'은 왕(王)의 약자, 빼짐(丷)은 사람 인의 약자이니 합치면 '희'가 됩니다.

흰 돌은 네 생물의 왕이며 흰 돌은 그 대로 이긴자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흰 돌이며, 이긴자이며, 네 생물의 왕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살펴보았지만, 이렇듯 '네 생물' 내지 '네 생물의 왕'은 성경뿐 아니라 주님 말씀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곳곳에 등장해 왔습니다. 「네 생물」은 마귀 육에 갇힌 하나님과 동의어이며, 「네 생물의 왕」은 마귀 육을 부방에 들어가는 거야.(1981년 12월 13일 말씀) ”라 하셨던 것이지요.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긴자 '마귀 육에 갇힌 하나님' 즉, '네 생물'이라는 주님의 선언은 인간과 삼라만상의 정체와 그 본질을 단 한 마디로 정의하고 밝혀낸, 인류사의 종점(終點)을 찍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는 인간을 그저 신의 피조물로 보는 기독교적인 존재론과, 반대로 인간과 삼라만상을 신과는 무관한 물질적 존재로 전락시킨 유물론을 단 한방에 깨 버리는 말씀의 절정입니다.

인간이 '네 생물'이요 마귀 육에 갇힌 하나님'이라는 이 선언은 인간의 기본 구성단위 자체가 신(神)이라는 말씀이니, 만물이 물질일 뿐이라는 유물론적 세계관을 정면으로 부수는 것이며, 또한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신이자 마귀 신이라 선 포함으로써, 하나님도 마귀 신도 인간과는 다른 별개의 존재로 규정하며 인간을 단순한 신의 피조물로 전락시켜 왔던 기독교적 세계관을 뿌리째 뒤집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두 강력한 도그마 즉, 유물론과 기독교의 창조론적 세계관을 질그릇처럼 통째로 깨부수려는 이 말씀은 목시육에 이긴자가 들고 나오리라 예언된 바로 그 절정(요한계시록 2:27)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네 생물'이란 것은 사람이 물질도, 피조물도 아닌 하나님의 신과 마귀 신의 병합체임을 밝히는 선언이며, 더 나아가 우리 인간 모두가 언젠간 '네 생물의 왕(王)' 즉, 마귀 육을 뿔고 나온 이긴자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그리 되고야 말 것이라는 위대한 미래상(未來像)까지 포함하고 있는 선언입니다.*